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1호 2009년 7월 24일

GLOBAL
COMPACT
KOREA
NETWORK
NEWSLETTER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목 차

1. 협회 주요 행사결과
 2. 유엔글로벌콤팩트 연구센터 사업 개시
 3. 세계동향
 4. 신규가입사 및 회원활동 동정
 5. COP 제출 현황
- ❖ 첨부: 기후변화 대응 세계 최고 경영인 회의 결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장마끝에 본격적인 여름이 되었습니다.

멋진 휴가를 계획하시고, 덥지만 활기찬 여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1. 협회 주요행사 결과

1) 제 2회 UNGC 비즈니스 리더 조찬회 개최

일시: 2009년 7월 15일(수) 오전 7:00-8:30

장소: 플라자 호텔 22층 루비홀

연사: 이승한 흠플러스 그룹 회장

강연제목: “녹색경영 이야기”

7월 15일 플라자 호텔에서 제 2회 UNGC 비즈니스 리더 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흠플러스 그룹의 이승한 회장이 연사로 참여하여 ‘녹색경영 이야기’라는 주제로 ‘흠플러스의 지속가능경영 비전 및 혁신적인 친환경 경영 사례’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기업차원에서 녹색성장의 의의 분석 및 세계 최고 유통회사를 꿈꾸는 회사로서, 그린스토어를 통한 CO2 절감, 어린이 환경 운동, 탄소 라벨링 등 환경캠페인 등 흠플러스의 친환경 경영을 위한 노력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UNGC 한국협회 속보 12호를 통해 기발송)



2) COP 워크숍 개최

일시: 7월 16일 (09:00~17:0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참석: UNGC 회원 기업 및 단체 실무진 33명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7월 16일 전일에 걸쳐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COP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UNGC 이행보고서 실용지침서, UNGC의 COP와 GRI의 연계에 관한 가이드, COP 길라잡이 번역본을 배부하였습니다. 주철기 사무총장의 'UNGC와 COP'에 관한 발표를 시작으로, LG화학 지속가능성 보고서(LG화학 박인 부장), Novartis COP (UNGC 한국협회 이준석 팀장), 놀부 COP (한국생산성본부 김동수 팀장), 하나은행의 지속가능성 보고서(UNGC 한국협회 이은경 간사)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UNGC 한국협회가 최근 제작한 COP 템플릿을 소개하였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UNGC 한국협회가 준비, 배포한 COP 템플릿을 바탕으로 하여, 인권/노동/환경/반부패/사회공헌의 주제별로 각 조가 직접COP를 작성, 발표, 검토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동 워크숍에 참석해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COP 워크숍은 올해 11월경 개최될 예정입니다.



3) 제 6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사회 개최

일시: 6월 17일 (18:30~20:30)

장소: 소공동 롯데호텔 바인

참석: 이사 및 감사 총 17명 중 11명 참석

내용:

UNGC 한국협회 이사진 재편

이사진들의 만장일치로 한전산업개발의 김영한 대표이사와 대구은행의 하춘수 은행장을 UNGC 한국협회의 새 이사진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제 7회 UNGC 네트워크 회의 참가결과 공유

주철기 사무총장은 6월 8일부터 4일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었던 제 7회 UNGC 네트워크 회의 (VII UN Global Compact Annual Network Forum) 참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뉴스 참고)

상반기 활동 평가 및 하반기 계획 발표

UNGC 한국협회 '09년 상반기 활동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주철기 사무총장이 보고하였습니다.

- 1월: 반부패 심포지움 개최
- 2월: 총회 개최, 정관 수정 및 임원 변경
- 3월: 제1회 UNGC 비즈니스 리더스 포럼 개최
- 4월: 1) 기후변화 대응 심포지움 개최. 2) 중국 UNGC 네트워크 발족식에서 주철기 사무총장이 축하연설
- 5월: 1) World Civic Forum의 PRME 세션 공동 주최('10년 아시아 PRME 회의 개최 예정 발표). 2)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 CEO 정상회의'에 참석함. 기후변화 대응에의 기업의 적극 참여를 촉구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연설이 있었음.
- 6월: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의 Aron Cramer 대표의 방한 시 조찬 협의.
- 7월: 제 2회 UNGC 비즈니스 리더스 포럼 개최 (홈플러스 이승한 회장이 친환경 주제 강연)
- 9월: 1) 작년에 이어 두번째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2) 창원에서 경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주최(9/8)하여 지방에 UNGC 가치를 확산 도모. 3) 한노총과 UNGC/노동 심포지움(9/15) 공동 개최 예정: UNGC 및 ICTU(국제노동조합총연맹)에서 각각 연사 1인 초청 예정.
- 10월: UNDP, 외교통상부와 공동으로 100억불에 달하는 유엔 조달시장에 대한 설명회 개최.
- 11월: 한,중,일의 UNGC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계획(11/13).

4) 제 7회 UNGC 연례 네트워크 회의 참가

행 사 명: VII UN Global Compact Annual Local Network Forum

일 시: 6월 8일~11일

장 소: Sabanci Center (이스탄불, 터키)

참 석 자: 80 여개국 330 여 명의 UNGC 관계자 (한국에서는 주철기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유창하 풀무원 부사장, 이준석 UNGC 한국협회 팀장 참석)

이번 네트워크 회의에 80 여개국 330 여명의 UNGC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UNGC 가치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오르그 켈 UNGC 대표는 5월에 개최되었던 '기후변화 CEO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기후변화 대응문제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UNGC 관련 여러 개혁안건 (회원사의 COP를 위한 로컬 네트워크의 역할, 10인 이하 소규모 기업의 참여, 시민단체의 참여, 로컬 네트워크의 최소 조건)에 관한 실무 그룹의 건의를 검토하고 총회의 결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밖에 UN Global Compact 본부의 Local Network Report 2008 발간이 있었으며, 인권 실무그룹 회의, 분쟁지역 기업활동 회의 등이 별도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회의와 크게 달라진 점은 중국의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중국 참여자가 거의 없었던 지난 회의와 비교하여, 10여명의 중국관계자들이 참여하였고, 중국개발은행에서 첫째날 만찬 주최를 비롯, 터키 Sabanci 그룹, Bursa 상공회의소, 스페인 대사관과 더불어 주요 후원자로 참여하는 한편, 수단 등 분쟁 지역관계 회의에 참여하는 등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활발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0년 6월 24~25일 뉴욕에서 개최되며, UNGC 설립 10주년 기념 2010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과 연계하여 개최될 예정입니다.

❖ 주요 결정 사항

2008년 10월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 6회 UNGC Annual Local Network

Forum에서 ‘회원사의 COP를 위한 로컬 네트워크의 역할’, ‘10인 이하 소규모 기업의 참여’, ‘시민단체의 참여’, ‘로컬 네트워크의 최소 조건’에 관한 실무 그룹이 설립되었고, 지난 몇개월간 전화 회의 등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이번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 COP (The Role of Local Networks in the COP Process)

- 로컬 네트워크는 회원사들의 COP가 최소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UNGC 본부는 기업들이 UNGC 가입시, COP 제출 의무에 대해 더 확실하게 요구하도록 하며, 각 COP에대한 평가서를 로컬 네트워크에게도 제공해야 함.
- 우수 COP (Notable COP) 선정에 로컬 네트워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함. 2009년 7월 이후 신규가입자는 가입 후 1년 이내에 COP 제출.
- 1년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non-communicating 지위 없이 바로 회원 자격 제명 (delisting).

2. 소규모 기업의 UNGC 참여 (The Engagement of Micro-enterprises in GCLNs)

- 근로자 1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의 UNGC 참여는 각 로컬 네트워크의 재량으로 결정함.
- 로컬 네트워크는 타국가의 소규모 기업의 참여 사례에 관한 참고자료를 자국 소규모 기업에게 제공해야 함.

3. 시민단체의 UNGC 참여 (The Engagement of Civil Society in GCLNs)

- 로컬 네트워크는 시민단체의 UNGC 참여를 적극 촉진하며, 이들이 기업 회원들과도 파트너십을 맺도록 도와야 함.
- 시민단체도 UNGC 참여 활동에 대한 연중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이 작성하는 COP와 동일할 필요는 없음.

4. 로컬 네트워크의 최소조건 (The Minimum Requirement of GCLNs)

- 매 로컬 네트워크는 모든 UNGC 회원사가 참여토록 노력
- 로컬 네트워크는 최소한 연중 총회 한번, UNGC 이슈에 관한 행사 한번을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모든 UNGC 멤버를 초청 대상으로 함. (local 협회 미가입 회원도 초청)

2. 유엔글로벌콤팩트 연구센터 사업 개시

최근 유엔글로벌콤팩트 연구센터 (소장: 조동성 교수)는 김지현 연구원을 채용하여 7월 20일 부터 연구센터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실은 한국협회 사무실 주소와 동일합니다.

연락처: 02-749-2182

3. 세계 동향



“Seal the Deal (코펜하겐 협상을 마무리 합시다)”는 12월 7~18일에 걸쳐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15)에서 정당하고, 균형있는, 그리고 효과적인 교토의정서 후속체제를 촉구하는 유엔캠페인입니다. 동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는 UNGC 회원사의 참여를 촉구합니다.

UNGC회원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Seal the Deal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1. **CEO의 성명:** 효과적인 기후 협정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한 100자 서술.
모든 CEO의 성명은 UNGC 웹사이트에 기재될 것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 고위급 회담에 참석하는 국가의 수반들과 공유될 것입니다. CEO의 성명서를 seal.the.deal@unglobalcompact.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인식제고:** 공공 관계와 마케팅 채널을 이용하여 Seal the Deal 의 홍보에 노력.
12월까지 Seal the Deal 로고를 보도자료, 출판물, 상품 등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3. **책임있는 로비활동:** 코펜하겐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로비합시다.

경제 위기속에서 책임 투자와 기업의 시민의식에 대해 언급

(2009년 6월 3일 뉴욕) UNGC와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는 경제 위기 속에서 책임 투자와 기업의 시민의식에 대한 briefing session을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주최 측은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요소들이 위기와 기회 관리로 통합됨을 역설하였습니다.

"Global Compact가 현대 기업의 필수적인 책임이라 주장해왔던 문제들이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0년 창설 이후, 우리는 원칙과 가치, 책임감 등을 세계 시장에 내재화시키는 작업을 해왔으며, 또한 이것이 행해지지 않을 때 사회가 궁극적으로는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있다"며 Georg Kell UNGC 사무국장은 언급하였습니다.

기업-투자자-NGO, 분쟁 지역에서의 책임 투자에 관해 논의

(2009년 6월 8일 이스탄불) 60명 이상의 국제 비즈니스의 대표자, 기관 투자자, 자산 운용사, 그리고 민간 사회 조직이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주최하는 이스탄불 모임에서 분쟁 지역에 대한 투자 관련 문제들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날의 토론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국제 투자 현황, 철수전략과 참여방법 등 다양한 이슈들을 포함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사무국장 Georg Kell은 “충돌상황에서의 투자의 민감한 역할에 대해 더 나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인권 솔루션 포럼에서 경영 딜레마에 관해 논의

(2009년 6월 9일 이스탄불) 다국적 기업의 인권 딜레마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웹기반 솔루션 포럼이 글로벌콤팩트 연간 로컬 네트워크 포럼 기간 동안 설립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세계인권선언 60주년 행사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UNGC와 Maplecroft가 공동으로 제작하며, GE Foundation이 재정 지원합니다.

“솔루션 포럼은 기업들에게 인권에 대한 이해를 개선시키고,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해결책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정책 및 법무 수석 Ursula Wynhoven이 언급했습니다.

UNGC 네트워크 보고서 발간

(2009년 6월 9일 이스탄불) UNGC Local Network Report 2008이 제 7차 연간 로컬네트워크 포럼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세계 80개 이상의 기존 및 신규 네트워크에 관한 통계, 네트워크 구조, 활동, 이슈 등에 대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의 성장과 발전을 고찰하기 위해, COP 및 사회의 참여를 장려하는 활동에 관한 로컬 네트워크의 노력을 자세히 조명하였습니다.

세계 아동 노동 금지의 날

(2009년 6월 12일 뉴욕) 세계 아동 노동 금지의 날 2009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국제노동기구(ILO)는 아동노동의 소녀 착취를 조명하고 “소녀들에게 기회를: 미래로 가는 열쇠, 노동문제를 다루다” 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아동노동의 최악 유형

철폐 규정(ILO규정 182번) 및 최저연령규정(138번)을 채택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UNGC의 다섯번째 원칙은 기업들에게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를 지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UNGC 미국협회 리포트 「CSR와 공공 정책」 발간

(2009년 6월 17일 뉴욕) UNGC 미국협회는 2009 컨퍼런스 「CSR을 공공정책 이니셔티브로 통합하기」 리포트를 발간하였습니다. 5월 13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컨퍼런스에는 공공, 민간, 학계 분야의 80명의 대표이사와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및 기후-수자원, 지속가능성과 재무, 책임있는 전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09년 두번째 회의는 하반기에 열릴 예정입니다.

우수 COP 보고서 제출 회원사들의 우수한 주가 성적

(2009년 6월 18일 뉴욕) 우수 COP로 지정된 바 있는 보고서를 제출한 UNGC 회원사들이 지난 2년간 주요 주식시장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어 왔음이 밝혀졌습니다. 위험관리 및 기업지배구조 서비스 업체인 RiskMetrics Group에 따르면 우수 COP를 제출한 회원사들은 07년 3월 이후 MSCI World Index보다 평균 7.3%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08년 10월 시장의 급격한 하락시에도, 'Notable'업체들은 6%가량 높은 성과를 보였고, 09년 3월말 이후로는 10% 만점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MSCI World Index보다 'Notable'업체의 성과가 높은 것을 기업 책임과 주가 성적의 관계의 증거로 이해해서는 안되지만, Global Compact 제안에 따른 ESG 정보를 공개한 공개상장 기업과 장기 주식시장 가치 회복 능력간 명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8, 선진 책임경영에 있어서 Global Compact의 역할 환영

(2009년 7월 11일 라퀼라/뉴욕) G8 지도자들은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린 2009 Summit에서 Global Compact의 활동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고, 선언문 「Responsible Leadership for a Sustainable Future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있는 리더십)」에서 Global Compact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53조: “...우리는 CSR을 비즈니스 행위와 통합시키는 관련 국제기관들 (ILO, OECD, UN Global Compact)의 역할을 환영하고, 기존의 CSR 시스템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 일관적인 방법으로 서로 협력하기를 촉구한다.”

131조: “...천연자원의 불법적인 개발 방지에 대한 5대湖 국제회의를 환영하며, OECD, 국제연합, UN Global Compact가 동 국제회의와 협력하고, 거버넌스가 취약한 국가들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발전시키도록 주요 이해관계자들과도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각국 정부 지도자, 경제위기에 대처함에 있어서 원칙 기반 비즈니스의 중요성 확인

(2009년 6월 26일 뉴욕) '세계 경제 위기와 발전에 미치는 영향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에 모인 정부 지도자들은 UNGC에 의해 제창된 원칙과 가치들이 기업 경영에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Delhi Workshop에서 윤리강령, 반부패 정책 사례 발표

(2009년 6월 30일 뉴델리) Global Compact Society India 는 부패가 사업과 사회에 미치는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Global Compact 원칙 준수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Georg Kell UNGC 사무국장은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인도의 기업들은 Global Compact의 원칙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없었는데, 반부패 아젠다 및 엄중 처벌 원칙(zero-tolerance)을 채택하는 선도자의 위치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 워크숍은 Global Compact Society India, 국제투명성 기구, UN 마약 및 범죄사무소가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PRI 연례 컨퍼런스 개최

(2009년 7월 17일 시드니)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 이니셔티브인 책임투자 원칙(The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의 연례 컨퍼런스가 16~17일 전세계 275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호주정부, UNGC, UNEP Finance Initiative이 후원아래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PRI의 Report on Progress - 2009를 선보였습니다.

4. 신규 가입사 및 회원활동 동정

7월 23일 현재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한 한국 회원사는 모두 155개입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6/30), 서울시농수산물공사(7/7)가 신규 가입했습니다. 가입을 축하드리며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홈플러스는 올해 9월 중 '사회기여재단'을 설립할 것이며, 이 재단에 앞으로 5년간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 그룹 이승한 회장은 7월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홈플러스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홈플러스 기여재단 (가칭)'을 설립할 것이며, 중소기업, 학계, NGO 등과 연계하는 '네트워크형 연합 재단'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한 회장은 이 행사에서 모두가 존경하는 '큰바위 얼굴'처럼 홈플러스는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국가의 성장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여 세계 최고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지속성장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5. COP 제출 현황

COP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토지공사 (7월 23일), 현대제철 (7월 23일), 대구은행 (7월 16일), 한국전력기술 (7월 16일), STX (7월 16일), 한국수자원공사 (7월 15일), SK 텔레콤 (7월 8일), 농수산물유통공사 (7월 7일), 웅진코웨이 (6월 26일), SK 에너지 (6월 23일), 대한지적공사 (6월 22일)

COP 제출기한이 지났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시아나 항공, 창대 섬유, 기업은행,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신대륙, 트레블러스 호텔 제주

COP 제출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30일 미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석탄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한전원자력연료, 한국농어촌공사, SBS, 한겨레, 유한킴벌리

회원비 납부 현황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회원사의 연회비로 운영됩니다. 현재 회원사 연회비 납부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회비안내 및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2009년 6월 이후 아래의 회원사가 회비를 납부해주셨습니다.

유니네오, 한국자유총연맹,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대한상공회의소,
동일방직, 대한운동사협회, 한국산업은행,
신대륙 에너지, CJ, 동성중공업, 웅진코웨이,
RNL바이오, 한국토지공사

❖ 첨부: 기후변화 대응 세계 최고 경영인 회의 결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5가 파크타워 103동 1705호
전화: 02-749-2149 팩스: 02-749-2148
e-mail: ungckorea@gmail.com 홈페이지: www.unglobalcompact.kr